

국내대학 35곳 세계랭킹 진입... 1위 서울대 2위 카이스트

THE 세계대학평가 2021

93개국 1527개 대학 순위 포함
서울대 60위, 카이스트 96위 기록
영 옥스퍼드 대학 전체 1위 차지

‘THE 세계대학평가 2021’에서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각각 세계 60위와 96위를 기록하며 10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성균관대는 101위로 국내 사립대 중 1위다. 세계 1000위권 내에 진입한 국내 대학은 22곳이다. THE가 공개하는 순위표에는 올해 총 35개 국내 대학이 포함되면서 지난해보다 4곳 늘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2일 ‘THE 세계 대학 순위 2021(THE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1)’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는 93개국 상위 1527개 대학이 순위에 포함됐다.

서울대는 2014년부터 1위 자리를 공

〈2021 THE 세계대학평가〉 /THE

국내순위	대학	21년 세계순위
1	서울대	60
2	KAIST	96
3	성균관대	101
4	포항공대	151
5	고려대	167
6	UNIST	176
7	연세대	187
8	경희대	251-300
9	세종대	301-350
10	한양대	351-400
11	GIST	501-600
12	아주대	601-800
13	중앙대	601-800
14	이화여대	601-800
15	건국대	601-800
16	울산대	601-800
17	전남대	801-1000
18	인하대	801-1000
19	경북대	801-1000
20	부산대	801-1000

고히 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평가보다 4계단 상승해 60위를 기록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 포스텍(POSTECH·포항공과대)이 국내 대학 1위를 지켰지만, 2014년부터 서울대가 1위 자리를 빼앗은 이후 8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8년부터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3위권 내에 진입한 성균관대는 올해도 Top3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세계 순위는 12단계, 국내 순위는 1단계 떨어졌지만, 삼성그룹의 전폭적 지지 속에 의대가 약진하면서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을 SCI급 저널에 게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E는 2004년부터 세계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THE 세계대학평가의 경우 평판을 중심으로 하는 QS 평가와는 달리 최근 5년간 논문 인용지수를 주로 보고 있다.

THE의 평가항목은 ▲교육-학습여건(25%) ▲연구 실적(30%) ▲연구 영향력(논문당 피인용수)(30%) ▲국제화(7.5%) ▲기술이전 수입 등 산학협력(7.5%) 등 5가지 영역이 있다. 여기서 교육여건은 5개, 연구실적은 3개, 국제

화는 3개 지표로 세분화됐다. 세부지표까지 따지면 총 13개 지표를 통해 순위를 산출한다.

국내 4위와 5위는 각각 포항공대와 고려대가 차지했다. 두 대학의 THE 세계대학 평가 국내 순위는 지난해와 변함없다. 다만, 포항공대는 지난해 세계 순위 146위에서 올해 151위로 5계단 떨어진 반면, 고려대는 지난해 179위에서 167위로 12계단 상승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니스트(USIN·울산과학기술대)의 약진이 돋보인다. 지난 2018년 처음 세계대학랭킹에 진입해 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후 줄곧 201~250위를 유지한 유니스트는 올해 평가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세계 순위 176위, 국내 대학 순위 6위에 올랐다.

연세대는 지난해 세계 197위에서 10계단 올라 올해 187위를 기록하며 국내 7위다. 이 밖에도 ▲경희대(251-300) ▲세종대(301-350) ▲한양대(351-400)가 국내 10위권 내에 진입했다.

이 밖에도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 501-600) ▲아주대(601-800)

▲중앙대(601-800) ▲이화여대(601-800) ▲건국대(601-800) ▲울산대(601-800) ▲전남대(801-1000) ▲인하대(801-1000) ▲경북대(801-1000) ▲부산대(801-1000) ▲서강대(801-1000) ▲영남대(801-1000) ▲가톨릭대(1001+) ▲충북대(1001+) ▲충남대(1001+) ▲경상대(1001+) ▲한림대(1001+) ▲인천대(1001+) ▲제주대(1001+) ▲전북대(1001+) ▲강원대(1001+) ▲국민대(1001+) ▲서울시립대(1001+) ▲서울과학기술대(1001+) ▲숭실대(1001+) 등 국내 대학 35곳이 올해 THE가 공개한 세계대학평가 순위 내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지난해 THE가 공개한 순위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가톨릭대·충북대·경상대·제주대 등 4개 대학이 올해는 포함됐다.

한편, 이번 THE 세계대학평가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캘텍(캘리포니아 공과대학) ▲MIT가 뒤를 이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생 48% “2학기 전체 비대면 강의해야” 송실대, 컬러필터 기술 국제 학술지 게재

알바몬 2학기 강의방식·등록금 설문 대학생 91% “2학기 등록금 감액되어야”

대학생 48.3%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학기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생 91.2%가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감액해야 한다고 답했다.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전국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먼저, ‘올해 2학기 강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묻자, 48.3%의 대학생이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졸업에 꼭 필요한

강의에 한해 대면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 역시 45.9%로 높았고, ‘안전수칙이 준수된다면 전체 강의를 대면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은 5.8%에 그쳤다.

실제 대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의 2학기 강의 방식은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71.4%)’으로 진행되는 곳이 가장 많았다. ‘전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답변은 23.8%였고, ‘전체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곳은 4.8%로 집계됐다.

알바몬에 따르면, 대학생 91.2%는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생은 2학기 등록금이 감액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수업 질

하락(1학기 대비 보완책이 없어서)(64.2%)’을 꼽았다. 이어 ‘도서관, 실습실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서(39.8%)’라는 답변과 ‘비대면 수업 대비 등록금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34.1%)’ 등도 등록금 감액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알바몬 조사 결과 실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한 학교는 33.1%로 조사돼 3곳 중 1곳에 그쳤다.

한편,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대학생들 중 21.4%만이 비대면 수업이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40.2%는 비대면 수업 만족도가 ‘보통 수준’이라 답했고, 38.4%는 비대면 수업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진 기자

이호진 교수 참여 연구팀

빛의 방향에 따라 이미지 정보 변화

송실대는 이호진 전자정보공학부 교수(사진)가 교신저자(책임저자)로 참여한 연구팀의 논문이 나노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 나노 레터스 8월호에 지난달 20일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논문 ‘플라즈몬 나노그래이팅과 에탈론 구조체 기반의 극성 선택적 컬러필터’에는 가시광선 대역에서의 빛의 극성에 따라 나타나는 색과 이미지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나노(10-9m) 크기의 패턴과 에탈론 구조체가 결합된 컬러필터 기술을 개발 결과가 담겼다.

이번 연구에서는 플라즈몬 나노 패턴과 에탈론 구조체를 결합함으로써 이미지 정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광학소자를 개발했다.



플라즈모닉스란 나노 사이즈의 금속 구조체를 이용하여 빛의 회절 한계보다 작은 영역에서 광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스펙트럼의 가시

광선의 투과를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에탈론은 이중 반사판 형태의 광학 소자로서, 구조체 내의 굴절률 또는 막의 두께를 조정함으로써 이 구조체를 통과하는 빛의 간섭 패턴을 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두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높은 광효율을 확보함과 동시에 빛의 편광방향에 따라 특정 이미지를 선명한 컬러로 나타내거나 또는 완전히 사라지게 함으로써 기존에 보고된 바 없는 높은 편광 분리도를 구현했다.

/이현진 기자

단국대, 한국MS와 언택트 코딩교육

미래융합형 맞춤형 인재 양성

단국대가 용인시·한국마이크로소프트(이하 한국MS)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융합형 맞춤형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언택트 코딩교육에 앞장선다.

단국대는 지난 2일 용인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용인시·한국MS와 ‘용인 창의인재 미래캠퍼스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단국대 김수복 총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현정 한국MS 공공사업본부장(오른쪽)이 ‘용인 창의인재 미래캠퍼스’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김수복 단국대 총장(왼쪽), 백군기 용인시장(가운데), 김현정 한국MS 공공사업본부장(오른쪽)이 ‘용인 창의인재 미래캠퍼스’ 구축을 위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단국대

특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모든 교육은 언택트로 실시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디자인씽킹, 리빙랩, SW융합교육,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일학습병행 사업 A등급 선정

한신대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2019년도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대학(A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평가는 기업 관리, 실습생(학습근로자) 관리, 만족도 조사 등의 정량·정성지표에 대해 전국 38개 IPP사업 운영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일 한신대에 따르면, ‘소통을 통한 관계 유지’를 강조해 온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단은 이번에도 장기현장실습 ‘실습유지율’ 평가 항목에서 ‘민집’을 획득했다. 한신대에서는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훈련을 위해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단 산하에 듀얼공동훈련센터를 설치하고 ‘마케팅전략기획’과 ‘소프트웨어 개발’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알레르기 염증반응 차단 연구

강호근 학생 논문 국제 학술지 게재

호서대는 식품공학과 3학년 강호근 학생(사진)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이 SCI급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 2020년 최근호에 게재됐다고 3일 밝혔다.

논문이 실린 ‘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는 약리학, 면역 병리학 및 면역 독성학 관련 분야 학술지로, 약리학 분야에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학술지다. 논문은 지도교수인 정현자 건강기능식품학과 교수팀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된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중요한 핵 인자 카파-B 리간드의 수용



체 활성화제(RANKL) 신호전달과정을 녹차 주요성분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가 차단함으로써 알레르기 염증반응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이다.

현재까지 EGCG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알레르기 염증반응인 RANKL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알레르기 염증반응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난치성 질환을 일으킨다.

/이현진 기자